

전남도·대구시 불자회 연합법회

전남도청 및 시·군 불자회와 대구시 불자회는 4월 28일 장성 백양사에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양 시·도 공무원불자회 회원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영호남 공무원 불자들이 화합을 다지고 올 하반기에도 대구법회를 갖는 등 교류를 넓혀하기로 했다. 사진은 전남도·대구시 불자회 연합법회 모습.



불교 전국산악인련 임원 수련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악)는 4월 27-28일 공주 갑사 유스호스텔에서 임원수련법회를 봉행했다. 중앙회 임원, 각 시도지회 및 단위 산악회 임원 80여명이 동참한 이날 수련회에서 산악인불자들은 불교산악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정인악 총재가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불자회 개심사 순례법회

경향신문사 불자회(회장 강신환)는 4월 27일 서산 개심사와 보현사지, 서산마애삼존불을 찾아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4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는 석불선양회 불교유적답사팀이 동행해 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의식을 집전했다. 개심사 대웅보전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경불회 첫돌...회원확대 나선다

10개 지방경찰청·200여 경찰서 불교회 갖춰

수덕사에서 기념법회...화합·발전 서원

인천 등 지방경찰청 연내 결성 추진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충남지방경찰청장, 이하 경불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 4월 27-28일 예산 수덕사에서 총회 및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경찰불자들의 화합과 발전을 서원했다.

지난해 4월 28일 대전 구암사에서 창립한 이후 경불회는 내실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회원들의 신심 다지기와 불자회가 창립되지 않은 지방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의 불교회 창립 지원에 주력했다.

그 결과 경찰불자들의 신행을 돕는 경찰법요집 발간, 법회 지원 및 활성화 등 각급 경찰서 불교회별 신행활동이 크게 확대됐다. 단위 경찰서 불교회 창립도 늘어 전남·충남지방경찰청 등 2개 지방경찰청과 30여 경찰서의 불교회 가 새롭게 창립됐다. 이로써 인천·울산·강원·전북지방경찰청을 제외한 10개 지방경찰청과 200여 경찰서에 불교회가 꾸려졌다.

이같은 경불회의 성장은 상하 관계

가 분명한 경찰 조직의 특성을 활용한 체계 확립을 통해 가능했다는 평가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를 연결한 불교회의 체계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출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 게다가 지난해 11월 창단한 경승단의 재정, 법회, 신행활동 등 활동 지원도 큰 힘이 됐다.

경불회는 올해 불교회간 협의체제와 회원교육 등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또 불교회가 구성되지 않은 4개 지방경찰청 불교회의 연내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원진 개편을 단행해 사무국장에 김진홍 포교사를, 총무부장에 이을수(충남지방경찰청) 경위를, 조



4월 27-28일 월정사에서 열린 불자 방송·언론인 연수에서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하고 있다.

불자 방송·언론인 월정사에서 연수

연합단체 구성 긴밀 협조

불자 방송·언론인 연수가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4월 27-28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렸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 불자회와 경향신문사, 중앙일보사, 한겨레신문사 등 언론사 불자회 회원 300여명이 동참한 이번 연수

에서는 상호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불자방송인련인 연합단체 구성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연내 구성을 목표로 중앙과 지방언론사 불자들의 만남도 우선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연수에 참가한 불자 방송·언론인들은 새벽예불, 발우공양 등 전통불교 체험은 물론 상원사 적멸보궁을 참배했다.

충남대병원 불자회 창립

충남대병원 불자회가 27일 오후 3시 병원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이광순 씨 등 12명의 창립준비위원들이 지난달부터 회원 모집에 들어가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다.

불자회는 3교대 근무로 회원들의 법회 참석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매주 정기법회와 환자법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참석 기회를 제공해 신심을 다질 계획이다.

전력인불자련 참회법회

장기파업 국민불편 죄송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김영창)는 4월 28일 공주 동학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발전자회사 파업여파로 발전소지회가 불참해 규모가 축소돼 열린 이날 법회는 장기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한 참회법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처음으로 지방 사업소 불자회 주관으로 열려 타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불자회가 미결성된 사업소의 새로운 지회 결성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분사, 전력연구원, 한일병원, 고리원자력, 월성원자력, 영광원자력, 삼천포, 서인천 복합화력, 상서지점, 북부지점, 고흥지점, 장수지점 등 12개 지회에서 130여명이 참가했다.

한편 전력인불자연합회는 10월경 영



전력인불자들이 동학사 불교문화원 앞에서 기념촬영한 모습.

광원지력 선우회 주관으로 장성 백양사에서 전국 규모의 연합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직부장에 김덕수대구 서부경찰서 경찰사관 선출해 활동력 강화를 꾀하는 한편 경찰청 경승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내 포교사들을 상임포교사로 임명해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총무단 회의를 신설해 사무국장이 주재하도록 했다.

불교회가 없는 4개 지방경찰청은 7

월 강원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전북·인천·울산지방경찰청을 연이어 창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원·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이미 불자회 창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 단계에 있다.

김진홍 사무국장은 "전국 경찰서에 불교회를 결성해 명실상부한 경불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불자들의 신심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신심고양, 공부하는 모임으로”

대전광역시청 불자회 광무영 회장



등에 대한 봉사활동도 병행한다. 회원 확대와 관련해 광 회장은 “대전지역 직장불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힘입어 광역시청 불자회 창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신심이 깊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은 가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들을 불자회에 가입시켜 신행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신심과 불교적 소양을 키워 공부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심이 강해야 탄탄한

광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자회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역시청내 4명의 국장급

분기마다 철야정진·성지순례

운영위원 20명 근무처 배정

불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4일 창립한 대전광역시청 불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광무영(57·사진) 지회과장은 회원들의 신심 고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3명의 회원들을 지도법사로 자체 교육을 마련하는 한편 분기마다 관내 사찰에서 철야정진 개최, 기도 성지 순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 독거노인

간부불자들로 구성된 고문단과 각 국별로 임명된 운영위원, 회장단 등 20여명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근무처마다 다양하게 배정된 운영위원들의 활동은 광역시청내 불자회 홍보 효과도 기대된다. 대전 중앙불교대학을 졸업하는 등 신심이 두터운 광 회장은 지난해부터 불자회 창립을 발원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불자들을 섭외, 불자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리 모임에선

국회직원신도회 축서사 신행실수

국회직장각회 직원신도회(회장 김중환)는 25-26일 봉화 축서사에서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주지 무어스님의 법문과 108배, 염불 등 신행실수로 진행된다. 법회 후에는 청량사와 부석사를 순례한다.

경찰청불교회 청내법당 부처님 점안

경찰청 불교회(회장 박재진)는 청내 법당에서 9일 오후 5시 부처님 점안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4월 20일 법당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와 개금불사에 돌입했던 경찰청 불교회는 이날 법회를 계기로 모임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티베트의 자연과 문화안내서 세 권

티베트를 알아야 '달라이 라마'가 보인다

언제나 연꽃미소를 띤 자비와 평화의 화신, '달라이 라마!'

그의 고향은 아득히 눈 덮인 히말라야 설악고원(雪域高原). 그 신비와 명상의 땅에 한국인 세 사람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들여놓았다.

현대인들에게 비폭력의 성자로 혹은 다정한 친구로 존경받는 '달라이 라마'를 찾기 위해... 화가, 탐험가, 의사. 그들은 마침내 온갖 역경을 이기고 수많은 '달라이 라마'를 찾아내었다.

한국인 모두에게 바치는 이 책은 티베트 곳곳에서 발견한 '달라이 라마'에 관한 특별 보고서이다. 글, 사진, 그림을 한꺼번에 동원해 티베트의 문화와 자연을 입체적으로 담아내었다.



티베트의 신비와 명상
-포탈라에서 수미산까지-

- 반양장 유행어 416쪽
- 글·사진 / 김규현 / 값 17,000원



지도의 공백지대를 가다
-티베트 8만 Km-

- 반양장 유행어 388쪽
- 글·사진 / 박철민 / 값 15,000원



히말라야 있거나 혹은 없거나

- 반양장 유행어 368쪽
- 글·사진 / 임현담 / 값 15,000원